

루마니아 금융산업의 최근 동향

□ 금융산업의 효율성 낮아

- 루마니아 금융산업은 주변 중·동구 국가들에 비해 낙후돼 있으며, 금융기관들의 자금중개 기능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. 그 결과 민간기업들은 자본조달이 쉽지 않으며, 중소기업들은 특히 높은 금리로 인해 단기자금 조달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금융기관들도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장기금융 제공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따라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이며, 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전체의 약 13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. 또한, 은행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GDP의 약 25%(2001년 6월말 기준)를 밑돌고 있으며 연간 대출규모도 GDP의 약 10.4%에 불과함.

* 체코, 폴란드, 헝가리 등 동구 선진국들의 GDP 대비 은행 총자산 규모는 평균 68%, 유로지역은 평균 260% 수준임.

□ 은행산업 소수은행에 집중

- 루마니아 금융산업은 국영은행 비중이 높고, 소수 은행에 집중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.
- 2002년 5월 현재 영업중인 41개 상업은행 중 국영은행은 정부가

100% 지분을 소유한 국영저축은행(State Saving Bank: CEC)을 비롯하여 루마니아 상업은행(Banca Comerciala Romania: BCR), 수출입은행(Eximbank) 등 3개 은행이나,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말 현재 42.8%에 달하였음.

* 민영화, 외국계은행 진출 등으로 1998년 75%를 기록했던 국영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.

- 한편, 2001년 말 현재 5대 상업은행 자산은 은행산업 총자산의 65%를 차지하고 있음.

* ① BCR(31.25%), ② 루마니아 개발은행(15.6%), ③ CEC(8.6%), ④ ABN Amro(5.5%), ⑤ Banc Post(4%) 등의 순서임.

□ 금융감독 기능 강화에 나서

- 최근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대한 조사 빈도를 늘리고 문제발생 시 경고서한 발송, 제재조치 발동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.

- 정부는 IMF의 제안에 따라 파산절차 강화,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보증기금에 보다 많은 권한 부여 등 금융부문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음. 특히, 몇몇 은행 파산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공적자금이 보증기금에 투입된 바 있어 금융감독 및 규제체제의 강화는 불가피한 것이며, 이를 통해 루마니아 금융시스템이 보다 선진화되고 신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.

- 한편, 각각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던 중앙은행(NBR), 증권위원회(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), 보험감독위원회(Insurance Monitoring Commission) 등 3개 기관은 지난 3월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통합된 금융감독에 나섰다.

□ 국영은행 민영화도 적극 추진

- 꾸준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결과 루마니아 금융산업은 점차 경쟁적 시장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, 대기업 확보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짐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.

* 41개 상업은행 중 24개 은행은 외국자본이 다수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8개 은행은 외국계은행의 자회사임. 또한, 2001년 말 현재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은 55.3%임.

- 이는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각 등 자산건전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며, 루마니아 최대은행인 BCR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결과 비교적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현재는 CEC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루마니아 정부는 2001년 중 다수의 부실은행과 농업은행(Banca Agricola)을 민영화시켰음. 루마니아 정부의 민영화 전략은 낮은 가격의 매각 대신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었음.
- 2002년 초 시작된 BCR의 정부지분 70%의 매각작업은 주간사 선정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,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 또한, CEC와 Eximbank도 2002~03년 중 민영화될 예정이며, Banc Post의 정부지분 17%와 루마니아 개발은행(RDB)의 잔여 정부지분도 금년 안에 매각될 예정임.

책임연구원 고재호(☎3779-6663)

E-mail : kohjh@koreaexim.go.kr